여름 스위스는, 단연코 수영.

점심시간에 수영 좀 하고 올게요

점심시간 이용해 호숫가와 강가로 수영하러 가는 스위스 사람들
호수의 나라다운 천연 야외 풀장
알프스 산정 호수에서 5 성 급 뷰 감상하며 수영하는 묘미
도심 속 무료/저렴 수영장

스위스는 유럽 전역의 워터 리조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믿지 못하겠다면? 여기 소개하는 다채로운 강가와 호숫가 수영 시설을 둘러보면 고개가 끄덕여질 것이다. 이들 중 여럿은 시내 한복판에 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수영을 하고 오후 근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다. 이렇게 호수나 강가에 마련된 공공 야외 수영장을 영어로 리도(Lido)라 부른다. 그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리도만 골라봤다. 이들은 무료로 운영되거나 혹은 CHF 10 내외의 저렴한 입장료를 받고 있어 저예산 여행자들에게도 환영받을 만한 자연 체험 공간이 되어준다. 단, 스위스의 물은 빙하가 녹은 것으로 온도가 꽤 차가울 수 있으니,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입수하도록 하며,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꼭 지키도록 한다.

1. 루체른 리도(Luzern Lido)
루체른의 교통박물관 베르케르스하우스(Verkehrshaus) 근처 호숫가에 있는 수영장으로, 약 300m 나 되는 해변의 길이가 인상적이다. 알프스 가장자리에 자리한 모래사장은 루체른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모임 장소다. 해변은 수영장 시설의 일부로, 쉬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찾아가는 법: 루체른 기차역에서 버스를 타고 “베르케르스하우스(Verkehrshaus) – 뷔르첸바흐(Würzenbach)” 정류장에서 내리면 된다.

2. 미텐케 리도(Mythenquai Lido)
취리히 호숫가에 있는 미텐케 리도는 길이가 250m 나 되는 해안을 갖췄다. 수영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 반면, 워터 슬라이드는 가족들에게 인기다. 모든 것을 갖췄다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다. 세계 최초의 스탠드 업 패들 보드 자동 디스펜서 시설도 있다. 근처에 있는 힐틀(Hiltl) 레스토랑에서는 맛있는 채식 요리가 기다리고 있고, 독서를 장려하는 책 교환 박스까지 마련되어 있다.

찾아가는 법: 트램 7 번을 타고 “브루나우슈트라쎄(Brunaustrasse)”에서 하차하거나, 버스 161 혹은 165 번을 타고 “수쿨렌텐삼룽(Sukkulentensammlung)” 정류장에서 내리면 된다.

3. 제바트(Seebad), 루체른(Luzern)
루체른에서도 유서 깊은 호숫가 수영장으로, 도심 한복판에서 완벽한 여름날을 보낼 수 있다. 루체른 호수에서 몸을 식히며 필라투스(Pilatus) 산세를 감상하고, 루체른의 문화 복합 공간인 카카엘(KKL)의 풍경을 음미한다. 배가 고프거나 갈증을 느낀다면 레스토랑과 바에 마련된 여러 메뉴를 살펴보자. 노을 맛집으로도 유명한 곳이니 말이다.

찾아가는 법: 슈바넨플라츠(Schwanenplatz)에서 버스를 타고 “카지노 팔라스(Casino Palace)”에서 하차하면 된다.

4. 리바디 샤프하우젠(Rhybadi Schaffhausen)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

무노트(Munot) 성곽의 뷰가 완벽하게 들어오는 리바디 샤프하우젠은 더위를 식혀가기 완벽한 장소다. 목재를 이용해 물가에 만든 수영장으로, 이런 종류로는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다. 140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샤프하우젠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수영장이다. 강물결에 둥실둥실 떠다니며 몇 시간씩 놀다 갈 수 있는 곳으로, 여기에서 바라보는 무노트 성곽의 뷰가 특히 아름답기로 소문났다.

찾아가는 법: 샤프하우젠 기차역에서 걸어서 10 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5. 프라우엔바디(Frauenbadi), 취리히(Zurich)
이름답게 낮 동안에는 여성에게만 문을 여는 수영장으로, 리마트(Limmat) 강가에 있다. 향수 어린 아르누보 양식의 풀장은 그로스뮌스터(Grossmünster) 교회의 쌍둥이 탑을 한 아름 선사한다. 수영장 앞으로 취리히 구시가지의 정취가 평온하게 펼쳐진다. 작은 도서관도 갖추고 있어 물가에서 여유를 부리며 독서를 즐길 수도 있다. 해가 지면, 야외 풀장은 트렌디한 족욕 바로 변신해 남성들에게도 문을 활짝 연다.

찾아가는 법: 트램을 타고 "칸토날방크(Kantonalbank)"에서 하차하거나, 그 건너편인 "헬름하우스(Helmhaus)"에서 하차하면 된다. 물론 걸어서도 기차역에서 15 분이면 된다.

6. 트륍제(Trübsee), 엥겔베르크(Engelberg)
해발고도 1,800m 에 있는 산정호수로, 웅장한 티틀리스(Titlis) 산세가 한눈에 들어온다. 엥겔베르크에서 티틀리스행 케이블카를 타고 가다, 중간역 트륍제에서 내리면 된다. 호수에서 수영도 하고, 노를 저을 수도 있다. 호숫가 주변 산책로도 유명한 하이킹 코스다.

찾아가는 법: 루체른에서 기차를 타고 엥겔베르크에 하차한 뒤, 티틀리스로 향하는 케이블카를 타고 중간역인 "트륍제"에서 내리면 된다.

7. 라이제(Leisee), 체르마트(Zermatt)
체르마트에서 지하 케이블카로 오를 수 있는 수네가(Sunnega) 아래쪽에 있는 산정호수로, 어른이나 어린이 모두 좋아하는 체르마트 주민들의 명소다. 햇살도 쬐고, 물장난도 하고, 더위도 식히다가 바비큐 그릴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해발고도 2,300m 위에 있는 호수라 더위를 피하기에 이만한 곳이 없다. 마테호른(Matterhorn)의 뷰가 등장하는 5 성급 야외 수영장이다.

찾아가는 법: 체르마트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수네가에 내려 15 분만 걸으면 된다.

8. 마르칠리(Marzili), 베른(Bern)
마르칠리는 스위스의 수도에서 제일 인기 있는 야외 풀장일 것이다. 아레(Aare) 강과 접해 있는데, 국회의사당의 아름다운 전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베른 사람들은 마르칠리에서 아이흐홀츠(Eichholz)까지 걸어간 다음 물 위에 둥실둥실 떠서 마르츨리까지 되돌아오는 방식으로 아레 강을 즐긴다.

찾아가는 법: 기차역이나 구시가지에서 무척 가깝다. 걸어서 15 분 정도면 된다.

9. 라 종시옹(La Jonction), 제네바(Geneva)
라 종시옹은 불어로 '합류지점'이라는 뜻답게, 론느(Rhône) 강과 아르브(Arve)이 만나며 여러 색채의 물빛을 만들어 내는 곳이다. 그 결과는 대단히 특이한 자연 현상을 만들어 낸다. 근처의 알라 푸앙트(À

la Pointe) 바에서는 커피 한 잔을 즐기며 크리스털같이 맑은 강물에서 몸을 식혀 가기 위해 모여든 현지인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찾아가는 법: 버스를 타고 "팔라디움(Palladium)" 정류장에 하차해 약 10 분만 걸으면 된다.

10. 리도 아스코나(Lido Ascona)
리도 아스코나는 셀 수 없이 많은 나무가 있는 4,000m2 부지의 공원에 있어 그늘이 무척 좋다. 스위스에서도 가장 기다란 모래사장 중 하나로 꼽힌다. 다양한 레스토랑과 바, 스포츠 시설을 갖춰 티치노 사람들과 관광객들이 즐겨 모이는 곳 중 하나가 되었다.

찾아가는 법: 마을 중심가에서 1k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어 산책 겸 걸어도 좋고, 버스를 타고 "리도(Lido)" 정류장에 내려도 된다.

11. 라인바트 브라이테(Rheinbad Breite), 바젤(Basel)
바젤 사람들이 "리바트히슬리(Rhybadhysli)"라 부르는 야외 풀장으로 도시 한복판 라인 강가에서 수영도 하고 쉬어갈 수 있는 명소다. 2 층짜리 철조 구조물이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라인 강에 몸을 적신 뒤, 데크에 올라 쉬어가며 햇살을 받기 좋다. 노을이 질 무렵이면 르 랭 블뢰(Le Rhin Bleu)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식사나 음료를 즐기며 아름다운 여름날을 마무리 짓기 좋다.

찾아가는 법: 버스를 타고 "발덴부르거슈트라쎄(Waldenburgerstrasse)" 정류장에서 하차해 5 분 정도 걸으면 된다.

12. 피씬 드 벨러리브(Piscine de Bellerive), 로잔(Lausanne)
벨러리브는 지난 75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로잔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야외 풀장 중 하나였다. 그림 같은 호숫가 위치, 광활한 잔디밭, 세 개의 커다란 풀장, 10m 높이의 다이빙 타워를 갖춘 벨러리브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대단히 사랑받는 명소다.

찾아가는 법: 우시(Ouchy) 지구에서 버스를 타고 "벨러리브(Bellerive)" 정류장에 하차하면 바로 수영장이 나온다.

13. 리도 로카르노(Lido Locarno)
600m 길이의 모래사장에서는 산들이 만들어 내는 아름다운 파노라마가 함께 펼쳐지며 리도 로카르노를 휴식과 휴양의 오아시스로 만들어 준다. 마지오레(Maggiore) 호수에서 수영을 하든, 비치 라운지에서 시원한 음료를 홀짝이든, 비치 발리볼에 열중하든, 진정 독특한 비치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찾아가는 법: 로카르노 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로카르노(Locarno), 리도(Lido)" 정류장에서 내리면 수영장이 바로 등장한다.

14. 리도 디 루가노(Lido di Lugano)
리도 디 루가노는 1920 년대의 향수 어린 매력을 지금까지도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다. 아름다운 모래사장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 살바토레(San Salvatore) 산의 화려한 풍경이 휴양지에 온 듯한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풀장, 비치 발리볼 코트, 워터 슬라이드, 레스토랑을 고루 갖춘 리도 디 루가노에는 여행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췄다.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

찾아가는 법: 버스를 타고 “카싸라테(Cassarate), 리도(Lido)” 정류장에서 내려 몇 분만 걸으면 된다.

15. 라 플라쥬 드 리바(La Plage de Rivaz), 몽트뢰(Montreux)
리바 해안은 평화와 고요의 천국으로 잘 알려진 명소다. 아름다운 풍경 속에 자리한 작은 공간으로, 완만한 언덕 풍경을 따라 내려가면 자갈 해변이 나온다. 크리스털같이 맑은 레만(Léman) 호수가 드넓게 펼쳐진다.

찾아가는 법: 몽트뢰에서 기차를 타고 “리바(Rivaz)” 역에서 하차하면 된다.

16. 세 개의 연못, 생갈렌(St. Gallen)
세 개의 연못은 생갈렌 도심에 있는 평화의 오아시스다. 원래는 수도원에서 물 공급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어여쁜 연못과 아르 누보 양식의 수영장 건물이 인기의 비결이다.

찾아가는 법: 버스를 타고 “뮐렉(Mühlegg)”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10 분 정도 걸으면 된다.

유용한 팁
수영을 계획할 때, 수온을 알면 더 유용할 때가 있다.
수영장 별로 매일의 날씨와 수영장 물 온도를 업데이트해 주는 페이지가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https://sospo.myswitzerland.com/lakesides-swimming-pools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